

신안군, 자연이 준 건강한 '명품 천일염'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비대면 온택트 해양수산부·전남도·신안군·영광군 공동 개최

1004섬 신안군은 오는 10월 16일(금)부터 10월 18일(일)까지 3일간 비대면 온택트로 즐기는 '2020 소금박람회'를 해양수산부·전라남도·신안군·영광군과 공동 개최한다.

소금박람회는 천일염 우수성 홍보를 통한 소비 활성화와 판로 개척을 위해 2009년부터 개최되어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하였다. 이번 2020 소금박람회는 '자연이 선물한 건강한 맛, 명품 천일염'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그리고 명품 천일염을 온라인 직거래로 구매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 및 대우영

로 개인의 위생과 면역력이 중요시 되고 있는 요즘 천일염을 사용한 건강한 음식 만들기, 한의학 박사가 들려주는 건강한 천일염 특강, 천일염 랜선골드벨 이외에도 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천일염 사용법 등 소금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개그맨 권진영과 임혁필의 "소금 길 따라 떠나는 소소한 즐방, 먹방!"은 실시간 랜선 투어를 통해 코로나19로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관광객들에게 국내 최초의 염전을 비롯한 주변 관광지, 지역 특산물 및 각종 먹거리 등을 소개하여 현장감을 높여줄 계획이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관람객과 참가업체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만큼 현장에 오지 않아도 현장감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중 온라인 판매방식을 통해 소비자의 금급증을 해소하고 현명한 신안천일염 구매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2020 소금박람회 개막선언에 앞서 온라인으로 처음 시도되는 만큼 신안천일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고, 앞으로 천일염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 소금박람회 공식홈페이지는 12월 31일까지 계속 운영되어 신안천일염의 직거래가 가능하다. 소비자는 좋은 천일염을 산지 가격에 구입하고,



2020 소금박람회
자연이 선물한 건강한 맛, 명품 천일염
10.16(금) - 18(일) 영암·신안 온라인오픈마켓

www.netummarket.kr
2020 소금박람회

참가업체는 온라인 판매망 구축으로 코로나19로 위축된 판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동취재본부

무안군,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오는 15일부터 11월 18일까지 조사

무안군은 오는 10월 15일부터 11월 18일까지 2020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구주택총조사는 대한민국 영과 이들이 살고 있는 거처에 대해 조사하며 인구·가구·주택에 대한 총수는 물론 규모, 분포, 사회·경제적 특성 등을 면밀히 파악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는 것으로서 5년마다 실시하는 대단위 국가통계사업이다.

이번 조사는 무안군 전체 34,122 가구 중 표본가구인 8,421가구를 대상으로 인구, 가구 및 주택에 대한 55개 항목을 조사한다.

먼저 이번달 15일부터 31일까

지 17일간 홈페이지(www.census.go.kr)를 통해 인터넷과 전화조사를 우선 실시한 후 미응답자를 대상으로 11월 1일부터 11월 18일까지 18일간 조사원이 대상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된 내용은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관련법령에 따라 비밀은 엄격히 보호된다.

군 관계자는 "인구주택총조사는 올바른 국가정책과 지역정책 수립을 위해 실시되므로 조사기간 중 조사요원증을 패용한 조사원이 표본가구 방문시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이성기 기자

영암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하세요

코로나19로 근로·사업소득 25%이상 감소한 가구 대상

영암군은 정부 4차 추경에 따라 코로나19로 생계위기를 겪는 저소득층 가구에 긴급생계지원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가구 356만원)이면서 재산이 3억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중에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가구이다. 코로나19 이전 대

비 근로소득이나 매출이 금년 7~9월 과 비교하여 25%이상 감소한 근로자나 자영업자, 2월 이후 구직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자 등이 해당된다.

다만, 기존 기초생계급여와 긴급생계지원 등 기존 복지제도를 비롯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접포 제도전장려

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자, 구직급여대상자, 택시(법인/개인) 등 정부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된다.

온라인신청은 12일부터 보건복지부 복지포 홈페이지(http://bokjiro.go.kr)에서 세대주가 휴대폰 인증 후 가능하며, 방문신청은 10월 19일부터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고, 신청시 소득감소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만 한다.

신청기한은 10월 말까지로 소득, 재산, 소득 감소 등의 확인 조사를 거쳐 연말까지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된다.

가구 규모별 차등지급하는 생계지원형 급여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을 한 차례만 지급한다.

영암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목포시, 개항문화거리 간판개선사업

원도심 청춘로 160m 완료 · 잔여 구간 11월 중 완료 예정

목포 원도심의 개항문화거리 일대가 간판정비사업을 통해 말끔한 모습으로 재탄생했다.

시는 '1897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환으로 오거리에서 평화선구점까지 총 430m구간 내 노후간판 및 건물임면 개선사업을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다.

개항문화거리 간판개선사업 1차분인 영진할인마트에서 평화선구점까지 총 160m 구간의 정비가 지난달 23일 완료되어 정돈된 도시 경관에 시민들의 호응이 이어지고 있다.

시는 지난 '19년 12월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사업추진을 위해 '20년 2월부터 간판디자인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7월까지 총 7차례 전문가 컨설팅을 거치며 특색 있는 간판디자인을 도출했다.

또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개항문화거리 간판개선사업 주민협의회'를 구성해 상호 협약을 체결하고 활발한 소통을 지속하는 등 사업 진행에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왔다.

사업 진행 결과 해당 구간의 무분별한 옥외광고물이 철거되고 업소별 특색 있는 간판 설치와 노후건물 임면 정비로 산뜻한 거리 조성이 완료됐다.

특히, 간판마다 야간 LED조명이 설치되어 당초 어두웠던 거리가 밝아져 대다수 지역주민이 만족하는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시 관계자는 "간판개선사업의 추진에는 지역주민의 참여의지,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 간판 크기에 대한 욕심 보단 거리 고유특색과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하는 업주의 이해심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향후 원도심권 중심으로 사업구역을 확대해 정부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간판개선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구간 내 전신주 지중화 공사와 가로경관개선 디자인도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목포=박정수 기자

'목포 간편음식' 기술 전수 교육

목화솜빵 · 비파다쿠아즈 · 맛김새우칩 상품화

지난해 전국 최초 맛의 도시 목포를 선포한 목포시는 지난 8일 자체 개발한 간편음식(주전부리) 레시피 기술 전수 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간편하게 맛볼 수 있는 먹거리 문화를 보완하고자 개발한 목포 간편음식 3종인 (가정)목화솜빵, 비파다쿠아즈, 맛김새우칩의 레시피 기술을 전수하여 상품화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교육 참여자는 지난 9월 모집 공고를 통해 간편음식을 상품화 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 마련된 자를 우선으로 최종 14명을 선발했다. 이날 교육에는 간편음식의 개발취지, 기본이론과 직접 만들어보는 실습을 위주로 진행됐다.

교육에 참여한 요식업 관계자들은 레시피 전수를 통해 특색있는 지역 간편음식을 상품화 할 수 있는 이번 교육 기회에 큰 호응을 보이며 추가적 교육을 희망했고, 목포시장은 "먹어보고 구매할 수 있도록 상품화 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환 기자

영광굴비, 작년 대비 50% 판매 증가



영광군은 지속되는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올해 추석 영광굴비 판매량이 지난해 추석 대비 50%나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영광군은 추석 명절기간 영광군 수협 등의 판매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굴비 판매액이 50%(170억 원) 증가했으

며, 판매량은 4,987건에서 7,480건으로 2,493건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성과는 추석 명절에 한하여 김영관굴비와 완화(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10만 원→20만 원 상향)됨과 동시에 올해 태풍, 잦은 장마 등으로 인해 농작물 등의 가격이 상승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영광굴비 선호도가 증가하고 매출액이 기록적으로 상승한 만큼 앞으로도 영광 굴비산업 발전을 위해 영광군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코로나19 극복
대숲맑은 담양
공동 브랜드
함께해요!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의 청정자연에서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수확한 건강한 우리 농산물과 함께 코로나19의 빠른 극복을 기원합니다.